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이 자이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조우홍^o

^o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csdcj@hanmail.net^o

The Effect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on Ego-Resilience

Woo-Hong Cho^o

^o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이 자이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대학생활적응의 기초자료 활용과 시사점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은 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인적재치를 산출하였고,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은 크론바하 알파계수 (Cro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스트레스, 친구관계, 정서적지지는 학교생활만족에 따라 자이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수업, 대학환경은 학교생활만족에 따라 자이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자이탄력성(Ego-Resilience),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만족(Satisfaction), 사회적환경(Social environment)

I. Introduction

오늘날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화에 맞춰 학교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더 어려워 졌다. 또한,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 수 감소로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대학생 활적응, 자이탄력성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학교가 갖는 명망도, 전공적합도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물리적 인 교육시설, 각종 학생지원체제 등 학교 변수들도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 개인적인 변인으로는 진로·적성, 인성, 자이존중감, 대인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도 중요한 결정요인이다[1].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처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로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2].

[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대학환경풍토 및 정서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업적응과 정서적지지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 전공수업을 통한 만족감 향상 등 학교차원의 전공 및 정서적지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 유연한 태도 등을 형성하게 할 수 있고 학업성취와 사회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따라 자이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Empirical Analysis

1. Measuring Tools Verificat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표 1>와 같다. 요인분석은 Varimax에 의한 요인적재치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 Hypothesis Verification

2.1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만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스트레스, 친구관계, 전공수업, 정서적지지, 대학환경, 학교생활만족 등 변수들의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은 신뢰할 만 하다.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goodness of fit index and reliability

facto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1. stress	V1	.652					
	V2	.793					
	V3	.697					
	V4	.722					
	V5	.786					
2. Friends relationship	v6		.702				
	v7		.636				
	v8		.711				
	v9		.671				
3. Major class	v10			.731			
	v11			.704			
	v12			.682			
	v13			.653			
4. Emotional support	v14				.734		
	v15				.797		
	v16				.732		
	v17				.697		
	v18				.715		
5. University environment	v19				.683		
	v20					.675	
	v21					.694	
	v22					.718	
	v23					.635	
6. School life satisfaction	v24					.662	
	v25						.726
	v26						.796
	v27						.741
	v28						.754
	v29						.679
v30						.715	
eigen value	3.115	2.354	3.231	3.216	3.015	4.456	
Dispersion ratio(%)	7.151	5.126	5.323	7.652	7.536	8.528	
Cumulative ratio(%)	7.172	12.235	32.162	40.132	28.041	63.238	
Reliability Cronbach Alpha	.804	.641	.676	.816	.639	.817	
Model fit indices	$\chi^2 = 1692.605$, $p = .000$, $RMR = .039$, $GFI = .851$, $NFI = .862$, $RFI = .835$, $IFI = .894$, $CFI = .898$, $RMSEM = .062$						

* p<.05, ** p<.01, *** p<.001

III. Conclusions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은 스트레스, 친구관계, 전공수업, 정서적지지, 대학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관련해서 여러 맥락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학업성취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 판단하기도 하며 이는 자아탄력성과 성취감 증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구결과 첫째, 스트레스, 친구관계, 정서적지지는 학교생활만족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수업, 대학환경은 학교생활만족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1] Han Song-I, “Study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Character and Academic Life Satisfac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 pp.453-469, 2017.

[2] T. E. Lee & S. L. Lee,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and Smartphone Use on University Adaptation of College Freshmen”, Korean Family Welfare, Vol.19, No.3, pp.471-487, 2014.

[3] Y. S. Lim & K. Y. Kwon & S. J. Ha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Ego-resili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n smartphone addic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4, pp.919-931, 2017.